



서울시 중구 수표로 7 인성빌딩 7F
Telephon 02-2274-9637
Fax 02-2274-9643
E-mail bss@bss.or.kr
Homepage www.bss.or.kr
Facebook bss.socialfinance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대안금융 **사회연대은행**

2017 ANNUAL REPORT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Social Solidarity Bank ANNUAL REPORT



2017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CONTENTS

발간사	06
2017년 사회연대은행 모금 성과	08
2017년 주요활동	10
2017년 주요행사	12

주요사업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16
교육&컨설팅 지원	26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34

함께하는 사람들

한국JP모간 박라희 부문장	54
후원회원 박청미 '가백' 대표	55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	56
후원회원, 후원기업 명단	58

기관현황

2017 재정보고	62
-----------	----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연대은행

2017 ANNUAL REPORT

사회연대은행이 지난 1년간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믿음으로 만든 희망의 모습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모여 새로운 꿈을 품고 실현해가는 연대의 이야기가 세상 곳곳에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 2017 ANNUAL REPORT 발간사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올림 픽 경기를 보며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했던 정신과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던 얼굴들이 스쳐갑니다.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던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이 어느덧 15년의 역사를 쌓았습니다.

그 사이 저소득 취약계층 약 2천 2백 여 명이 44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연대은행의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뛰어넘어 청년, 사회혁신가, 시니어 등으로 확대되었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으로 시작한 마이크로크레딧이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사회적금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에는 특별히 사회적금융으로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추기 위한 밑 작업에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사회적금융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소외계층 중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긴 시간 동안 파트너로서, 후원자로서 응원하며 곁을 지켜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투자, 연대의 힘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 성장의 이면에 소외된 우리 이웃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지키고, 환경, 고용, 주거, 빈곤, 불평등 등 산적한 여러 사회적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항상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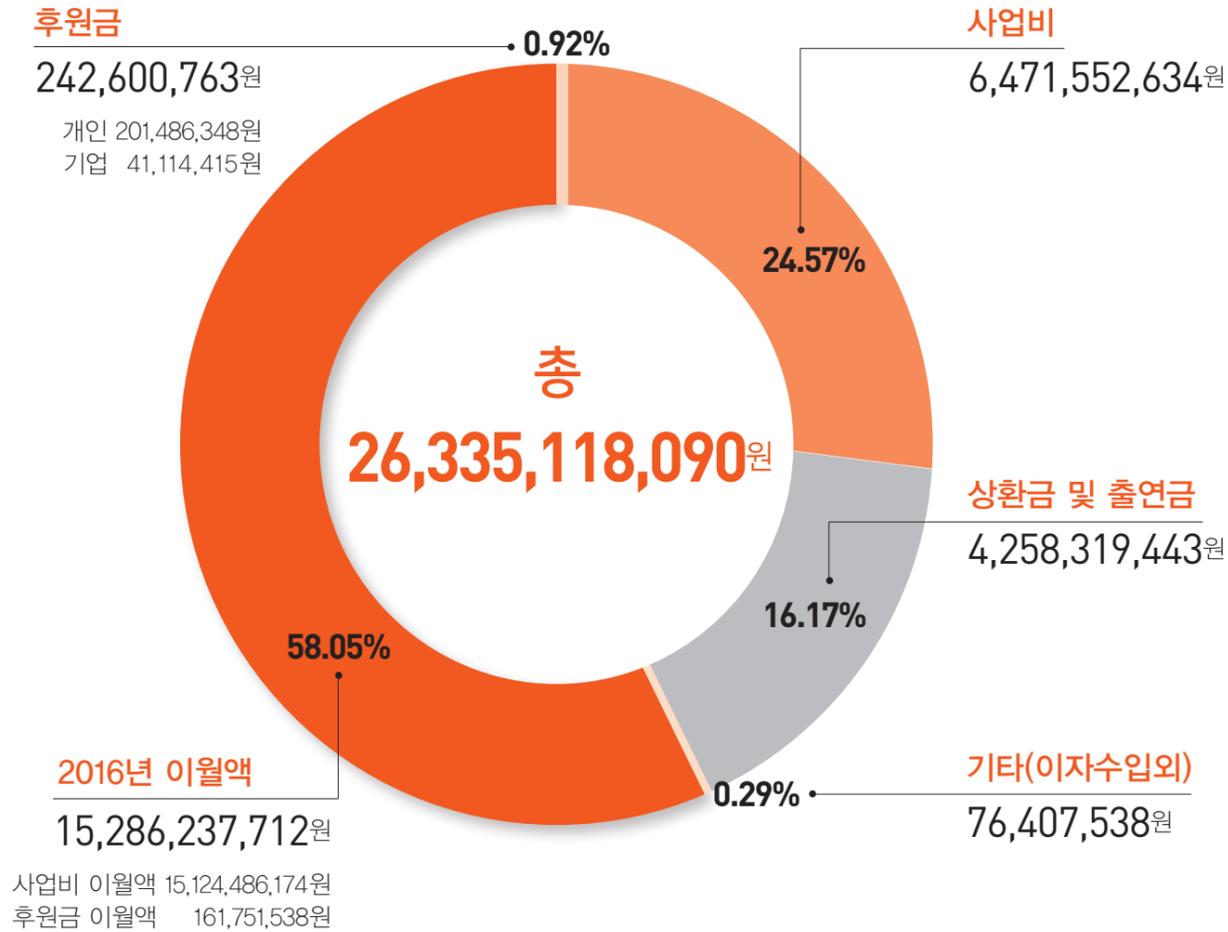
이를 위해 사회연대은행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혁신을 꿈꾸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연대은행이 가는 길에 관심과 열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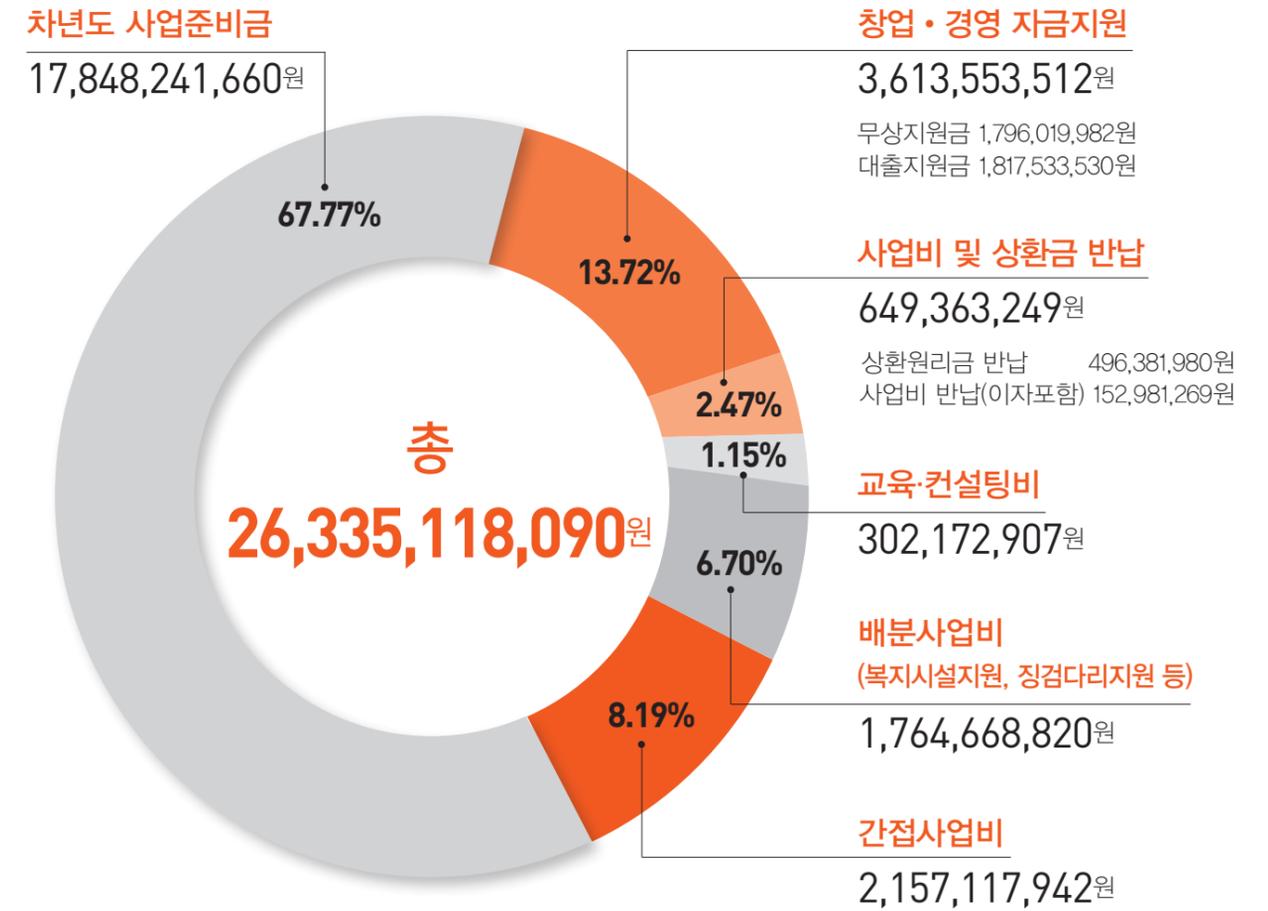
대표이사 **김용택**

| 2017년 사회연대은행 모금 수입 |



사회연대은행은 914여명의 후원회원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회비와 목적 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 2017년 사회연대은행 모금 지출 |



사회연대은행에 보내주신 후원회비와 기부금은 우리 이웃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2017년 주요활동



- 1

1월 HSBC 지원기업, 100% 상환 완료, 우수경영 감사패 전달

JAN
- 2

2월 사회연대은행 설립 14주년 기념식

FEB
- 3

3월 예금보험공사, 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기금 전달식
 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전력, 사회적경제조직 해외판로 지원 기금 전달식

MAR
- 4

4월 사회연대은행 · KT · BANKWELL글로벌, 사회적금융 전문 시스템 구축 협약
 시니어 사회공헌 커뮤니티 육성사업 결과발표회
 HSBC코리아, 사회적기업 지원금 전달

APR
- 6

6월 청년 문제 공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JUN

- 7

7월 한국전력, 에너지분야 클라우드펀딩 경영자금 지원

JUL
- 8

8월 사회적금융 전문시스템 구축 기념식

AUG
- 9

9월 KT&G, 사회연대은행, 언더독스, 청년창업지원 업무 협약 체결
 LG소셜캠퍼스 3기 비전 선포식
 미래에셋대우, 청년창업지원 프로젝트 지원금 전달
 구글 임팩트 챌린지,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구축 결과보고

SEP
- 11

11월 예금보험공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 기금전달

NOV
- 12

12월 한전KD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기금 전달
 BK기업은행,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현판식

DEC



사회연대은행-KT-뱅크웨어글로벌, 사회적금융 전문 시스템 구축 협약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2017년 4월 3일,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시스템 구축을 위해 IT·금융 전문기업인 KT, 뱅크웨어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은 KT와 뱅크웨어글로벌의 선진적인 금융 및 IT기술력으로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전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취약 계층의 자립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관련 제반 업무를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약식에서 KT 기업서비스본부 이선우 본부장은 “KT는 국민기업으로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사회적 금융 특화 전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IT인프라 지원을 통해 소외 계층의 자립 지원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뱅크웨어글로벌 이경조 대표는 “사회연대은행에 금융시스템을 기부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금융 혜택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사회연대은행에 기부해서 함께 사는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금융관련 전문 핀테크 기업으로 유명한 뱅크웨어글로벌과 KT의 도움으로 사회적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이고 투명한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난해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임팩트챌린지 Top10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금융의 혁신과 전문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KT&G-언더독스, 청년창업 지원 협약



2017년 9월 5일,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대표, 이상학 KT&G 지속경영본부장, 김정현 언더독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인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 분야를 대상으로 전현직 창업가들의 팀별 1:1 전담 코칭과 분야별 전문 멘토링, 실천 사회혁신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은 “국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차별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히고, 청년 창업지원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전용 공간도 확보해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IBK기업은행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현판식



2017년 12월 19일, IBK기업은행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현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은 높은 창업비용과 경험의 부재로 점포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중 한 점포에 여러 매장이 공유운영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장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공유가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판식에는 IBK기업은행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장과 박봉규 나눔행복부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그리고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에 선정된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조하연 대표, ‘프로젝트히다’ 정다운 대표, ‘쾌슈퍼’ 변은지 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 김창호 소비자브랜드그룹장은 어려운 창업시장에서 공유가게와 같이 다양한 협업의 방식으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격려했으며,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역시 지원기업들의 건강한 성장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DEURI INSTITUTE OF DESIGN

주요사업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듭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창업자금과 사후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컨설팅 지원

사회연대은행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니어, 영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연대은행은 사회혁신기업가와 사회적경제조직에 공간, 자금,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자원,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하여 창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의 목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자금 대출과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 소상공인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개발

- IBK기업은행,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
- 예금보험공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우리가게 희망예보'
- 멕시카나,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사업
- 한국씨티은행,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지원

◎ 심사 및 지원 프로세스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모델,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프로세스 개선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다변화

- 솔루션 컨설팅, 시설지원, 홍보지원 등 문제해결 중심의 신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창업자금지원

기금처	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4	110,000천원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69	1,352,000천원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16	299,815천원	
예금보험공사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1	25,000천원	
상 환 금	KDB나눔재단	KDB창업기금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16	320,618천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은퇴선수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사업	8	140,000천원
합계		114	2,247,433천원	

※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이 대상자 선정, 우리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경영, 생활 환경 개선 지원

기금처	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국민체육진흥공단	희망ReSTART창업지원사업	1	4,000천원
IBK기업은행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	20	132,253천원
합계		21	136,253천원

기타 지원

기금처	지원내용	지원건수
JP모간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 컨설팅	20개소

사후관리

직접방문	전화상담
1,340건	2,373건

※ 사회연대은행은 지원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창업지원금 지급 이후 최장 5년간 사후관리(재무교육, 사후 관리, 창업 경영개선 교육, 지역별 네트워킹 등)를 실시합니다.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



지원건수	지원금액
4	110,000,000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강남구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기부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지는 취지로 지역주민 대상 무담보·무보증 창업 대출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빈곤완화,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며 사업장소재(예정)지가 강남구이거나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2% / 5년(3개월 거치, 57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69	1,352,000,000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서울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저리 자금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75,800원 미만 이거나 한부모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직자, 다문화가정, 새터민, '서울희망플러스 통장' 또는 '서울꿈나래 통장' 저축 완료 자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18%(보증료율 0.5% 본인부담) / 5년(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16	299,815,530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사업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신용상의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던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신용회복 중이거나 개인회생 중인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예비 창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2% / 4년(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1	25,000,000

행복예감(豫感) 창업·자립지원사업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 급여 나눔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을 위해 창업자금 대출과 운영자금 지원,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2% / 4년(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2	60,000,000

소셜프랜차이즈 창업지원사업

KDB나눔재단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마트24에서는 가맹비 면제, 안정화 지원금 등 포괄적인 상호협력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하며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해외입양인 중 편의점(이마트24)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2% / 4년(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23	404,618,000

창업지원사업(상환금)

사회연대은행은 자금 지원을 받았던 지원 업체의 상환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소외계층 창업 지원에 재사용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환금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은 사회연대은행의 가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대상 : 최저생계비 180% 이내에 해당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
- 지원조건/기간 : 고정금리 연 2% / 4년(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20	132,253,000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

IBK기업은행은 임직원들의 재능나눔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을 제공하여 경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사회연대은행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내외부사인(간판)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 지원



지원건수	지원금액
20	140,747,280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

JP모간은 교육·솔루션 패키지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사업체의 경영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역량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사업 개선의지가 있는 청년 또는 여성가장 소상공인(기창업자)
- 지원내용 : 최대 800만원에 상당하는 경영 개선 종합 지원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은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준비에서부터 점포세팅, 창업 후 경영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이유로 가정을 부양해야하는 여성 가장
- 지원조건 : 2천만원 이하 창업자금 무상지원
- ※ 사업 종결 후 사후관리 진행 중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개발

낮은 신용등급이라는 이유로 적합한 금융기회를 박탈 당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소외문제를 해결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및 핀테크 기법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 실행 방법을 개발하는 데 구글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 대안금융이 제도권 금융의 혁신을 견인함으로써 금융소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 주요행사

JP모간,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 기금전달



JP모간과 사회연대은행은 열악한 지역업 시장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 청년, 여성가장 등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3월 2일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는 사업 개선의지가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의 청년, 여성가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몰비즈니스 경영교육, 솔루션 패키지,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전달식에 참석한 한국JP모간 박태진 대표는 "각 소상공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짜여진 개별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자들이 많다"며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우리가게 희망예보' 기금전달



예금보험공사는 2017년 11월 9일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가게 희망예보' 기금을 사회연대은행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게 희망예보'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및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금전달식에서 광범국 예보 사장은 "우리가게 희망예보 프로젝트가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값진 하루하루를 보내며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 IBK기업은행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 디자인으로 소상공인에 '희망' 전해요



IBK기업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은 노후하고 오염된 외부 간판을 개선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두발로MTB(옛 쌍쌍자전거)는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이를 수리해 판매하는 재생 자전거 판매 업체입니다. 이인구 두발로MTB 대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와 간판이 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두발로MTB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상호명을 두발로MTB로 변경하기로 하고 간판 교체와 더불어 내부 조명, 바닥재, 출입문도 모두 개선했습니다. 또 두발로MTB로 새롭게 태어난 쌍쌍자전거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함, 홍보물, 안내장, 고객 사용품도 제작 지원했습니다.

두발로MTB의 이인구 대표는 "새로운 간판이 주변에서 가장 보기 좋고 야간에 도 조명으로 잘 보이니 고객이 늘었다"며 "노후한 인테리어와 간판을 개선하고 보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기회가 적은 어르신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최강학원'은 낡고 오염된 외부 간판과 유리면 광고 교체와 함께 조명, 출입문 등 인테리어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최강학원 김보람 대표는 "인테리어 개선 후 수강생 만족도도 높고 학습 증진 효과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BK기업은행 임직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진행되는 '희망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은 2017년에 총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지원 등을 통해 홍보효과 및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 JP모간 우리 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 그 후, '어제와 다른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JP모간과 함께 실시한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가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커피숍, 외식업, 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청년,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사전 진단 컨설팅, 경영교육, 솔루션 패키지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원업체 전체 매출액이 약 30% 증가했으며, 총 2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풀타임 9명, 파트타임 12명). 또한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영상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매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내재화 시켰다고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업체 대표님들이 답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 참여 이후 어제와 다른 내일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생각도 전환시키고 싶었어요."



평강이네 꼬마김밥 김선경 대표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꼬마김밥 전문점 '평강이네 꼬마김밥'은 컨설팅을 통해 창문과 닥트시설을 만들고 수납공간을 개선하는 등 협소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또 메뉴를 간소화하고 테이크아웃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장이 워낙 협소했고 환기시설도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컨설팅 받아 공사한 이후 작업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새 기분, 새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김선경 대표는 개선된 작업 환경과 손님과의 소통 방법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웃는 모습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고객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컨설턴트의 지도에 따라 실천하면서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머리스타일 등 작고 사소한 것들을 계기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의외로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정이 깊어가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이 있나 봐요. 덕분에 이제는 손님들이 가깝다고 느껴져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김선경 대표는 세무, 마케팅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생각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컨설턴트 SAY

매장 인수 후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장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매장내부개선과 홍보마케팅 활동이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더민플라워 이민정 대표

인천 부평에서 '더민플라워'를 운영하는 창업 2년차 초보 사업가 이민정 대표는 만족하지 못했던 인테리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사업에 참여한 후, 인테리어는 물론 익스테리어까지 개선하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꽃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의 성공한 선배 사업가를 소개받아 플라워샵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상품 디스플레이는 물론 상품판매 팁, 매출관리법 등 크고 작은 노하우를 꼼꼼하게 알려주셨어요. 레슨비를 제공하거나 직원으로 일할 때나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인데, 현장에서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익히게 도움을 주셨어요." 초보 창업가에게 선배 사업가의 노하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이민정 대표의 하루하루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민플라워'에 남겨진 과제는 온라인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클래스 개설 등입니다. 이미 온라인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층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설팅과 관련해 이민정 대표는 "기려운 부분을 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시도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나를 뛰어넘는 기획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숙제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컨설턴트 SAY

전반적으로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 능력이 우수하고 고객서비스도 양호하므로 점포 가시성을 강화하고 점포 내외부 진열 개선과 판촉이 더해진다면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창업가의 패기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헤이븐 임종진 대표

세종대 외식경영학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학교 인근에 창업한 '오스트리아 헤이븐'은 이태리식 퓨전 술집 컨셉으로 20-30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창업했지만 건물 외벽 공사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영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종대 교내 카페, 푸드트럭, 보육원 봉사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오스트리아 헤이븐'은 본격적인 영업에 앞서 컨설팅을 통해 점포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공동운영하는 곳이라 열정과 의욕은 넘치는 반면 체계는 부족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근무일지, 업무 체크리스트, 마감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문서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서비스 매뉴얼 제작, 점포이익 관리 프로세스, 손익 플랜 수립 방법 등을 지도해 주셔서 운영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어요." 젊은 창업가 임종진 대표는 '사람, 팀원이 자산'이라고 합니다. 창업가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도 크지만,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뜻을 모아 함께 한다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컨설턴트 SAY

사업장 입지는 역사권과 대학가 상권의 먹거리 인근으로 장점이 있으나, 유사 경쟁점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초기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위해 점내 관리시스템이 사업초기에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업지원업체 응원 릴레이

건강한 죽 '정한뿌리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한뿌리죽'은 매일 도정한 쌀과 친환경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건강한 죽집입니다.

"강원도에서 산양삼 농장을 하는 친지를 덕분에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 좋은 음식을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했던 엄진섭 대표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방과 죽을 결합한 특별한 메뉴를 위해 식재료부터, 전용 육수와 분말을 개발할 수 있는 제조원을 섭외하고, 좋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정한뿌리죽'만의 레시피 등을 준비한 마침내 2016년 여름, 용산구 이촌동에 '정한뿌리죽'을 오픈했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깔끔하고 쾌적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가 주요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방과 죽을 결합한 메뉴에 대한 호불호도 명확했고, 가격저항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창업하고 약 반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장이 2층이라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놀라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회연대은행의 자금 심사 과정에서도 받았던 지적 사항들이라서 우리 매장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고 차별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왔어요."

보통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소화가 쉬운 '죽'을 찾지만 '정한뿌리죽'은 그에 앞서 '보양' 차원으로 찾거나 이유식, 아침죽, 간식 등 건강에 관심이 많은 3~40대 주부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하나하나 준비한 끝에 지금은 가격 저항도 없어지고 단골 손님도 생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엄진섭 대표는 온라인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핑몰 운영과 모바일 배달어플 '배민프레시'에도 입점하여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정한뿌리죽'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문적인 제조공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엄진섭 대표가 진심과 열정으로 가꾸고 있는 만큼 '정한뿌리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정한뿌리죽'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수제 김밥 '만나 153'

오색김밥과 찰현미, 찰흑미, 귀리 등 잡곡으로 만든 잡곡오색김밥, 단 두 가지 메뉴로 강남구 도곡동 일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만나 153'입니다. 간편하게 한 끼 때우는 용도였던 김밥을 한 끼의 건강한 식사로 격상시킨 '만나 153'의 프리미엄 김밥은 비행하며 짧은 시간 내에 식사를 해야 했던 이영자 대표의 승무원 딸을 위한 건강한 김밥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름과 설탕,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재료와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만나 153'의 프리미엄 김밥은 구기자, 당귀 등 한약재 물을 우려서 짓는 정성스러운 밥과 모든 속 재료들을 채썰어 사용함으로써 재료들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편식도 잡아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만나 153'의 김밥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유명 셰프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고 있는 김밥'이라며 종종 이용하시며 입소문도 내주시고 다른 고객분들도 단순한 김밥이 아닌 요리라고 평해주시면서 오히려 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속이 더부룩해 김밥을 멀리했다던 70대 어르신, 시집간 딸이 놀러올 때마다 딸과 함께 방문하시는 친정어머니, 멀리 노원구 하계동에서 찾아오시는 분, 접대용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손님맞이용으로 찾으시는 고객들의 꾸준한 발걸음이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자 대표에게는 최고의 찬사라며 수줍게 전했습니다.

2016년 4월 고객의 왕래가 없는, 죽어있는 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며 '1년은 가계세만 내도 성공'이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만나 153'을 시작한 지 어느새 1년. 그동안 전단지 홍보 한 번 없이 입소문과 진심을 다한 소통만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고, 다행히 매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진심을 나누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만큼 고객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았고 가맹문의도 심심치 않다고 합니다.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짧은 기간에 조금은 큰 꿈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에 이영자 대표는 '만나 153'의 2년 3년 후, 모습이 기대되고 설렌다고 합니다. 사회연대은행 역시 순간의 화려함이 아닌, 진심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있는 '만나 153'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 153'은 강남구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손님을 위한 정성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모어댄스시'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모어댄스시'는 신선한 초밥과 친절한 서비스로 호평이 자자한 곳입니다.

카페 같이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아가자기한 집기류의 정갈한 모습, 무엇보다 신선하고 맛있는 초밥 메뉴와 다양한 사이드 메뉴, 회를 좋아하지 않는 손님들을 위한 메뉴도 마련하여 손님들의 재방문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초밥집의 경우 경영자와 요리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이 바뀌면 맛이 바뀌는 문제가 있지만 모어댄스시는 오너셰프가 운영하고 있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과 요리를 동시에 제 공한 덕분에 한결같은 맛으로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백우성 대표는 평합니다.

백우성 대표는 약 20여 년 간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고 6개월간 창업을 위해 애쓴 결과, 모어댄스시 창업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음식과 방식으로 일을 해야 즐기면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황이라 주변에서는 창업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충분한 경험과 꼼꼼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모어댄스시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플레이팅이나 유행하는 요리 등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메뉴를 구성하기보다는 일 년에 한 번씩 신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평에 따라 메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모어댄스시'입니다. 또한 손님 방문시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메뉴가 있을 시에는 꼼꼼히 기록하여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우성 대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께서 모어댄스시를 동네 쉼터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음식을 통해 위로 받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도 단골손님이 말씀하시길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니 절대 없 어지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씀들이 모어댄스시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백우성 대표는 모어댄스시 창업 이후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고 전하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철저한 준비와 경험으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응원하였습니다. 진심을 담아 손님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이어가는 '모어댄스시'와 백우성 대표를 사회연대은행이 응원합니다.

'모어댄스시'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구두수선박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에서 3평 남짓 규모의 구두 가게 '구두수선박사'를 운영하는 이경임전금식 대표 부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한 공간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 온종일 좁은 공간에서 부부가 함께 일을 하다보면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경임·전금식 대표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의 영역이 확실하며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한 쪽의 그림 같다'는 평을 들으며 구두수선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전금식 대표의 주 종목은 구두 수선입니다. 동종업 경력 20년의 베테랑 기술자로 구두굽 높낮이 조절, 전체 밀창 교체 등 특별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명품도 수선가능해서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고객이 많고 유명 수선 기술자, 전문 공장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내 이경임 대표는 신발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수선을 도우며 남는 공간 한 칸에 신발 몇 켤레를 놓고 시작한 것이 어느덧 매장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매일 도매시장을 방문하며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 수선 20년 경력의 베테랑 남편과 신발 판매 1년 경력의 아내는 요즘 '오늘만 같아라'라는 마음으로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게 자리를 얻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은행의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됐어요. 긴박한 상황이라 급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러 갔는데, 그날만큼 추웠던 날이 없었어요. 다행히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연을 맺은 후에도 전문가 컨설팅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IBK기업은행을 통해 간판을 지원받아 고객층이 다변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창업할 때는 비용부담 때문에 간판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었는데, 얼마 전 간판을 비롯해 외부 환경정리를 지원해주셨어요. 우리 여간상 진행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시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조명간판 등으로 아간에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어서 젊은 층의 유입도 상당부분 늘고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을 것이고, 노력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있다'는 이경임전금식 대표였습니다. 열정적인 하루를 보내는 두 부부를 사회연대은행이 응원합니다.

'구두수선박사'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 & 컨설팅 지원

사회연대은행은 지원업체의 운영 지속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 경영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무교육 및 컨설팅, 은퇴 이후 시니어의 사회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 청년 관련 신규 사업 개발

- 한화생명, 탈시설청년 자립지원사업(2018년 진행 예정)

◎ 시니어브리지아카데미 활성화

- 연탄봉사, 네트워크활동, 송년회 등 총동문화 활성화
- 시니어 커뮤니티 3개팀 육성지원
- 시니어 동아리 5개팀 지원
-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참가자 사회심리적 변화 측정

◎ 재무상담 및 교육 대상층 확대

KDB나눔재단

- 기본 및 전략 교육 : 2회 / 68명 수료
- 직무향상교육 : 4회 / 94명 수료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 재무컨설팅 : 6회 / 27명 수료

생명보험협회

- 재무-신용교육 : 80명
- 상환기간 조정 추가 약정 : 79명 / 82건
- 나.비.채 프로젝트 지원 : 185명

* 나.비.채 프로젝트 지원 : 자기계발, 취업역량 강화, 문화여가 등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KDB나눔재단은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시니어에게 적합한 취업-창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공헌활동 의사가 있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인턴십, 시니어 단체 육성, 통합적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시니어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사회공헌활동 의사가 있는 중고령(만 45세 이상)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
- **사업내용** : 시니어 사회공헌 아카데미 및 인턴십, 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

재무설계교육·컨설팅·상담클리닉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는 건전한 재무관리와 신용관리를 돕는 재무교육 및 부채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재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재무 목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무 컨설팅 전문가와 1:1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저소득, 저신용 계층 중 신용관리에 관심있는 자 또는 재무설계를 희망하는 기관
- **사업내용** : 재무 및 신용관리, 현명한 지출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

생명보험협회는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의 전환대출 및 신규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2014년 12월 말 종결 후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원금 상환 도래하였으나, 재학 또는 취업준비로 상환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조정 추가 약정을 통해 월 납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I 청년이 함께 만드는 세상 '우리의 미래, 청년이 바랍니다.'

스펙, 학자금 대출, 취업, 주거...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못한 채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된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사회연대은행은 청년 당사자들,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 부족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역시 진로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노동 환경의 격차로 인해 치열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래에 청년들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창업의 경우,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의지와 상관없이 포기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히든북 박혜원 대표는 "취업과 창업을 모두 경험해 본 입장에서 현재 사회가 청년들을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현할 청년보다는 이미 기반을 갖춘 청년 위주의 지원이 대다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경제관념이 부족한 청년에게 적절한 교육없이 창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진로 탐색의 기회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경험과 멘토링 등을 제안했습니다.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는 "현재 청년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고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이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아도 대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자신의 선택을 매우 불안하게 느끼고 공무원 또는 대기업 취업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기회에 도전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경험을 제공하는 전문가 멘

토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서대학교 고시내 취업 컨설턴트 역시 "자기 이해와 폭넓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많다"고 강조하는 한편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에 창업 관련 정보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연계하는 것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멘토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및 생활비 부담

청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이라고 **모두의기숙사 임하은 대표**가 전했습니다. 임하은 대표는 "서울의 저렴한 고시원의 경우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창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정도로 열악하다"고 강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학생들은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 무언가에 도전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희년함께 이성영 팀장도 주거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고금리 부채를 가진 청년의 경우 대부분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이 장기간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실수 있는 휴식공간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 **희망만드는사람들의 서경준 부**

장은 청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고, 정리를 해도, 이야기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청년들의 심리, 정서, 금융 등의 코칭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문제의 경우 취업을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시내 취업 컨설턴트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사업이 다양한데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의 의지 부족도 문제

청년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학생이자 사업가인 **착한 대학생 대출 이용자 이성민씨**는 '청년의 문제 중 하나는 청년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동기부여나 어릴 때부터 부모로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성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며 청년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젠컴퍼니 채지희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또는 이미 창업을 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문제해결방식,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많이 느낀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의 초기진입이 쉽지만 문제 발생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경험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 간격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컨셉 프로그램과 다양한 전문가 멘토를 연계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희망만드는사람들 서경준 부장도 청년들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과정과 학교, 내면과 외면, 친숙한 상담가나 전문가, 청년들의 멘토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르호봇 G센터의 김영록 센터장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취.창업의 경계가 사라지며 급변하는 시대에 취준생과 YOLO족, 두 종류의 청년들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와 정부 정책 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나, 해외 사례를 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멘토링이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돈, 진로 등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편견없이 수용해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청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50플러스 현장을 누비는 시니어 교육 수료생들 '시니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시니어브리지센터가 시니어 소셜디자이너 양성과정 중 하나로 '50+디자이너'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교육 운영은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가 배출한 '양코르 브라보도 협동조합'에서 맡았습니다. '50+디자이너'는 50+ 세대의 제2인생설계를 위한 교육·여가·일자리·재무·라이프플랜 설계까지 원스톱 종합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50+세대의 적합한 일자리 모델발굴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50+디자이너' 양성과정을 통해 동료 시니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 활약하고 있는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수료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도심권50플러스센터 **이동영** 컨설턴트(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12기, 양코르커리어 2기)

Q 어떤 계기로 컨설턴트 참여를 하게 되셨나요?

A 직장 생활 35년 중 민간 금융기관에서 25년 근무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10년 했어요. 민간영역과 공공부문을 모두 경험하면서 보람을 느껴온 이후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일에 대해 알아보던 중 시니어 전직 지원에 대해 알게 되어 전직지원 전문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어요. 약 2년 정도 근무했는데 사회공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방향과 기회를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저 역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상담 받기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Q 인생 2막을 시니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컨설턴트 일상은 어떤가요?

A 주 2회 출근, 월40시간 이상 활동을 해요. 심리, 일자리, 건강, 여가, 사회공헌, 재무, 관계 등 7대 영역이 주요 상담 주제예요. 대체로 일자리에 대한 상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자리를 연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진로를 찾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상담 외에는 월1회 전체 컨설턴트 회의, 월2회 컨설턴트 자치회에 참여해요. 컨설턴트 회의는 상담사례 공유를 통해 서로 성장하고, 센터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요. 인생 1막보다 더 바쁜 일주일들을 보내고 있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즐겁고 힘이 납니다.

Q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양코르 커리어 프로젝트 등의 활동은 이어나가고 계신가요?

A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12기로 신용상담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했어요. 덕분에 상담진행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는 시니어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

고 있어 저 역시도 시니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지혜발전소'에 소속되어 주 2회 정도 강연 활동을 하는데,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시니어들에게 주도적인 삶을 개척하자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Q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A 상담은 기본 5회기로 진행되는데, 정보제공 위주인 경우가 많아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5회기를 모두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지 그분들이 더 기억에 남아요. 특히 그 중에 뭘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몰라 진로고민을 했던 분이 계셨는데 상담 후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시니어 컨설턴트 활동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선배로서 예비 컨설턴트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7대 분야가 있는데 각자 나름의 특화영역이 있어요.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 상담이나 전직 지원 가이드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의외로 가족관계 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상담 공부를 하신 분이나, 복지 쪽 일하신 분들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플러스를 대부분 나름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상담방법만 익힌다면 모두 좋은 상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연대은행을 비롯해 많은 교육기관에서 시니어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컨설턴트 선발 후에는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총동문화 '연탄봉사 출동'



강추위가 엄습하고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혹한으로 서민들의 겨울나가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2월은 기부 성수기여야 하는데 최근 들어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어 가뜰이나 추운 겨울에 서민들은 난방문제 해결도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총동문화가 나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기로 작은 성의나마 연탄 1,000장을 마련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나누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달한 연탄 1,000장은 김익동 화원(1기)이 봉사활동을 연결해주는 회사 (주)드리미 측과 협조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배우 이윤지 100장, 배우 임주환 400장, 그룹 핫샷으로부터 500장씩을 기증받았습니다. 대상가구는 비교적 어려운 세대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수소문하여 상계동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상계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선정된 다섯 가구에 연탄 200장씩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입니다. 각자 연탄 2장을 양손으로 들어보니 제법 무겁고 또 차가운 느낌입니다. 어린아이들 안듯이 각지를 꺼서 품에 안고 쭈고 길다란 산동네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곳곳이 빙판길이라 불안했지만 16명의 동문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장씩 안고 나르는 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옷 안으로는 습기가 차고 머리에서는 땀이 나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고역은 연탄을 받아서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좁은 공간에 기울지 않고, 맴시 좋게 쌓아야 하는데 계속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일이 제법 고됩니다. 그래도 누구하나 얼굴 찌푸리거나 슬쩍 빠져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니 한 집 마치고 다음 집으로 옮길 때는 모두가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3시간 남짓 땀흘리다보니 1,000장의 연탄이 바닥을 보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대견해 하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채워드린 연탄들이 올 겨울 집집마다 따뜻하게 데워줄 것을 생각하니 반나절 고생이 보람됐다는 생각이 들어 내년에도 또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힘들고 이곳저곳에 시커멓게 연탄이 묻었지만 오늘 참석하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봅니다.

글 / 김신묵 (시니어 두드림기자단)

| 2017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송년회 '돌아 봄'

인생2막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채우기 위해 '시니어브리지 사회공헌 아카데미'를 수료한 동문들의 송년회가 2017년 12월 8일 왕십리 베아르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송년회의 주제는 '돌아 봄'이었습니다.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봄으로써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자는 의미와 전반생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또 다른 성숙함으로 맞이하는 후반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계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사회연대은행과 동문회가 함께 준비한 만큼 수료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동문화 내 송년회 TF팀은 일찍부터 모여 일사분란하게 준비를 마치고, 반갑게 동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송년회는 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를 위해 애써주신 KDB나눔재단, 사회연대은행, 동문화 관계자들에게 노래와 꽃을 선물하는 깜짝 파티로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음악과 꽃에 놀란 만큼 즐거움도 컸고 흥겨움 속에서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 행사는 KDB나눔재단 강창호 국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 아카데미 총동문화 강신영 회장의 인사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과 아카데미 총동문화는 각각 KDB나눔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특별히 아카데미 진행에 도움을 준 KDB나눔재단 허태우 팀장과 정덕진 차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송년회를 비롯해 동문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내어준 동문 여러분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동문화에서는 이 날 심시일반 모은 기부금에 총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연대은행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글 / 김신묵 (시니어 두드림기자단)



액티브 시니어들의 건강한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준비된 '시니어 GO인 자랑 대회' 사전신청자 및 현장참가자는 가족, 동료 등 개인적인 내용부터 시니어 커뮤니티, 동아리, 사회참여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재철(2기) 동문의 사회로 김용덕 대표와 박상금 이사, 강신영 동문화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고민 중 2기 조희배 동문이 올댓SNS연구소 결성 후 지난 4년여 동안 많은 수료생을 배출한 반면 단체를 더욱 크게 발전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패널과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어 '최고 고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문들을 대상으로 'N행시 짓기'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투표를 통해 18기 이재영 동문이 최우수상을, 3기 김봉중 동문과 1기 손홍택 동문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I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재무상담 후기 '빛의 압박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회복하기 까지'

글 / 히ㅇㅇ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재무상담 이용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이며, 25개월 된 딸 아이의 엄마입니다.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제게 따뜻한 말씀과 희망을 주신 서경준 상담사님을 비롯해,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사회연대은행' 재무상담 관계자 여러분께 미흡한 글로나마 감사함을 전하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되어도, 빛만 없으면' 하는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몇 번이고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물(독촉장)에 마음 졸이고, 무엇을 해도 뚜렷하지 못해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꺼려졌습니다.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믿고 또 미웠습니다.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고 늘 가슴 졸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좋지 못한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빌렸던 돈을 지금까지 갚지 못했고, 해결할 방법을 찾을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저의 형편으로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살아오다 지금의 신랑을 만났고 늦둥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신랑을 만나 행복했고, 딸을 낳아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랑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살았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어린 딸아이를 보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다 지인의 소개로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재무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서경준 상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으면서 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난 할 수 있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용기가 났고, 희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편물들이 무성히 날아오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도, 무섭지도 않습니다.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서경준 상담사님의 크나큰 도움의 말씀과 배려 덕분에 위안을 받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연대은행이란 곳이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이고, 빛에 시달리며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용기내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움의 말씀과 관심을 가져주신 서경준 상담사님을 비롯해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사회연대은행' 재무상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 상담사 SAY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사회연대은행이 진행한 재무상담에 참여한 히ㅇㅇ님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도 상담을 통해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망가졌다는 오랜 자책감에서 벗어나고, 채무불이행자라는 인식으로 훼손되었던 자존감을 회복하여 정서적 안정도 되찾고 육아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건강한 심리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가혹한 추심과 법 조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현재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재무상담은 엄마와 어린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한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좋은 사례입니다.

히ㅇㅇ님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I KDB시니어브리지아카데미 총동문회 강신영 회장 인터뷰



지난 2017년 3월 KDB시니어브리지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으로 강신영 회장이 추대되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동문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강신영 회장을 만나 2기 동문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Q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총동문회 2대 회장으로 추대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재능있고 열정적인 운영위원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동문회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출발합니다. KDB시니어브리지 동문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과정의 특성상 연대감을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동문회는 이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겠습니다. 초대회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고 수고하셨다면, 2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 총동문회의 활동방향 설정과 역할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Q 신임 회장으로서 동문회원들에게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인맥은 자신의 자산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직장생활 할 때의 인맥은 다 소멸되고 새로운 세계에서 맺은 인맥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졸업한 것은 사회연대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의 일환이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배웠고 수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500여명에 달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총동문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참여할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시대입니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중지를 모아 모두가 협조하는 아이디어로 수정 보완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We are smarter than me)'는 조직 이론을 믿어야 합니다.

Q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특별히 준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A 앞으로 동문회보를 만들고 인터넷 카페도 만들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문회원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

Q 동문회 활동과 관련해 사회연대은행과는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계획이신가요?

A 여러 동문들이 경험했듯이 사회연대은행은 친절하게 동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동문회가 아직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재원도 미흡하다 보니 활발하게 나래를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고자 합니다. 또 사회연대은행에서 인재들을 어렵게 모아 배출한 만큼 동문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

회공헌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총동문회와 사회연대은행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Q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가치관,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A '한 우물을 파라, 결국은 이긴다'가 좌우명입니다. 캘리그라피 배울 때 좌우명을 써보라 해서 만들었던 좌우명이 지금 종로3가 전철역에 걸려 있습니다. 30년 전, 지금은 취미이자 특기가 된 맨스스포츠를 시작할 때 주변사람들은 몇 달 하고 그만 둘 줄 알았다고 했지만 집요하게 한 우물을 파다 보니 지금은 인생의 빼 놓을 수 없는 낙이 되었습니다.

여느 단체가 다 그렇지만, 총동문회란 모두의 힘을 합쳐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장단을 비롯해 동문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체의 회장은 대형 선박의 선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장이 선택한 항로가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지닌 강신영 회장이 KDB시니어브리지 아카데미 동문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기대가 큼니다.

신임 강신영 회장은 Bank of America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국내외 유명 건설 회사를 거쳤고 그 후에는 스포츠용품 관련 무역업체를 직접 경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시니어블로그협회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 / 김진욱 기자 (시니어두드림기자단)

사회적경제조직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은 사회혁신기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네트워킹, 멘토링 등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자원,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및 소셜비즈니스를 육성하기 위한 윤리적 투자 및 사회적 금융 펀드 등의 사회적 자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성과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신규 사업 개발

- IBK기업은행,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 KT&G, 청년창업 지원사업
- GS SHOP,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 한전KDN, 성장기반자금 대출사업

◎ 지원 방식 확장 및 다양화

- LG전자LG화학, LG소셜캠퍼스 사업의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기능 확장
- 한국전력, 크라우드펀딩, 해외판로지원 등 지원 방식 다양화

◎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네트워킹 활성화

- 지역기관 및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 지원기업과의 정기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사회혁신가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기금처	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33	804,217천원
	소셜벤처 경연대회	21	36,200천원
미래에셋대우	청년창업지원 점프업 오디션	12	62,500천원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7	112,663천원
KT&G	청년창업 지원사업	13	874,475천원
GS SHOP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15	86,680천원
합계		101	1,976,735천원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

기금처	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
LG전자LG화학	LG소셜펀드	28	774,920천원
	LG소셜캠퍼스(공간지원)	20	-
HSBC	HSBC KOREA 120 Fund	7	190,000천원
IBK기업은행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3	5,933천원
한국전력	크라우드펀딩	15	195,100천원
	해외 진출 지원	13	58,300천원
한전KDN	성장기반자금 대출사업	4	51,000천원
합계		90	1,275,253천원

| 사회혁신가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지원건수	지원금액
33	804,217,27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회연대은행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팀)'를 발굴하여 일정 기간 동안 창업에 필요한 공간, 자금, 멘토링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팀)
- 사업내용 : 창업자금, 공간, 교육, 멘토링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21	36,200,000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회연대은행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신으로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소셜벤처 저변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14~19세 청소년 또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 사업내용 : 기본심화 멘토링, 권역·전국대회 개최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12	62,500,000

청년창업지원 점프업 오디션

미래에셋대우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의지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 교육과 사업지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창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 사업내용 : 사업지원금 및 창업 특화교육, 점프업 오디션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7	112,633,651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소셜UP 희망UP'

IBK기업은행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소셜벤처 및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IBK기업은행 희망 컨설팅 및 크라우드펀딩 연계, 사업화 개발비 등 다양한 성장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소셜벤처 및 예비 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사업화 개발비, 워크샵, Case-Study, 멘토링, 크라우드펀딩 연계



지원건수	지원금액
13	874,475,000

청년창업 지원사업

KT&G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전·현직 창업가들의 전문멘토링,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사회혁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법인화 이전 개인, 팀)
- 사업내용 : 풀타임 사회혁신 스타트업 Launching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 멘토링, 템플릿 및 업무 시스템 제공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15	86,680,000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GS SHOP은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려는 사회혁신 창업가를 발굴하여 더 큰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미디어(콘텐츠플랫폼 등)와 커머스(제조유통 등) 중심의 소셜벤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사회혁신 스타트업 또는 예비 창업가
- 사업내용 : 창업 실적 교육, 사업비 지원, 전문가 멘토링, GS SHOP 인프라네트 워크·노하우 지원 등

I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멘토링. 성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사회연대은행은 '2017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시작에 앞서 새로운 상상력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11일,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열었습니다.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진행해 온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기업 우수모델을 다수 배출하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전문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특성상 행정업무는 점차 체계화된 반면, 인큐베이팅 서비스 역시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성찰과 대안을 찾아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을 모시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김용덕(사회연대은행 대표상임이사), 박상금(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강두진(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사업부 부장), 이영석(사회연대은행 인큐베이팅 팀장), 김호연(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담임멘토), 김승균(아르케 이사), 김민석(LG전자 CSR팀 팀장), 이광현(희망나눔세상 회장), 엄승용(충북시민재단 담임멘토), 정상훈(전 함께일하는재단 전문멘토), 박영혜(전 부천문화재단 전문멘토), 송윤일(육성사업 창업팀 6기 아트임팩트 대표)

신뢰와 동반성장을 통한 인큐베이팅

2011년부터 지난 6년간 사회연대은행의 인큐베이팅 성과를 살펴보면, 총 175개의 창업팀을 지원해 오마이컴퍼니, 마리몬드, 에이유디협동조합, 최계바라기획사, 농사펀드, 모두다 등의 사회적기업 창업 모범사례를 다수 배출하였으며, 사업비 총 94억원 지원, 창업 생존율 70% 유지(2016.12 기준), 사회적기업 지정(27개소), 다년위탁운영기관선정(2016-2018) 등 사회적기업 육성기관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창출과 관련해 육성사업 창업팀들

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신뢰와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관계형성과 다양한 자원 연계가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민·관·신·학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LG전자, LG화학, JP Morgan, IBK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의 사업비 지원은 창업팀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었고, LG전자, LG화학과 연계해 조성한 LG소셜캠퍼스(고려대 산학관 5층)에서는 인종 사회적기업 10개소, 소셜벤처 9개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인큐베이팅센터 등이 입주해 코워킹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멘토링으로의 변화모색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연대은행 멘토링 시스템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멘토링 시스템은 크게 행정·관리 위주의 담임 멘토링과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 멘토링으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현 전문멘토는 **수요자 중심으로 멘토링을 재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과서적인 멘토링은 지양하고 창업팀 맞춤형 멘토링 매칭 서비스와 나인블록을 형성해 성과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김승균 전문멘토는 가장 오래된 멘토로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인력, 예산, 기간 등 근본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발, 교육, 멘토링, 사례관리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호연 담임멘토는 사회연대은행 멘토의 강점은 친화력이지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수립 한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LG전자 CSR팀의 김민석 팀장은 **멘토와 멘티의 눈높이를 교정하는 것과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변화 추구

'충북시민재단'의 엄승용 멘토는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우수한 소수팀을 육성하는 것이 아닌 **사회자본과 지역사회변화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큐베이터의 성장이 곧 창업팀 성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멘토로 참여한 정상훈 총괄디렉터는 인큐베이터의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일방적인 틀에 맞추거나 구속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책측면과 관련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풀(Pool)이 많이 넓어졌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이중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미션이라도 충족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자원과의 다양한 협력적 연대가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의 원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이자 사회적기업 부천행복도시락을 책임지고 있는 박영혜 대표는 '지역자원들과 연계하고, 다양한 분야를 두루 살펴보면 경험한 창업팀들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현장을 통해 영감을 얻고,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팀빌딩 차원에서 **창업팀들의 의사소통과 구성원의 결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연대은행은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발굴과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I 소셜벤처 창업, 왜 하는지 궁금해?



이제 창업은 돈 버는 수단을 넘어 사회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주거 난 때문에 느낀 '깊은 빡침' 탓에, 다른 누군가는 공연예술계의 '지속가능한 덕질'을 위해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창업에 주목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처음 접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관심이 생겨도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사회연대은행이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아, 이거 될 것 같은데...'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창업이라는 거친 바다를 향해하는 초창기 소셜벤처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장이었습니다.

왜 '취업' 대신 '창업'일까

"대학생인 사람은 다 공감하겠지만 취업한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게 없다. 창업하면 99%의 확률로 망한다. 근데 취업해도 99%의 확률로 망한다. 우리가 창업한 이유 중 하나는 취업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나마 창업이 내 삶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된 노페탕 팀원들은 어떤 시도를 하던 리스크 높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도전 하는게 나아 창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빈곤한 문화예술 아티스트들의 생계문제. 고민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아티스트들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웹 플랫폼 삼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이 창업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아티스트의 자립기반 문제가 예술계는 물론 예술을 즐기는 청년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나선 셰어하우스 코장을 운영하는 넵스터의 김현성 대표는 "집주인들이 월세는 늘리면서 시세는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며 무척 화가 났다"며 "공동 창업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셰어하우스란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 외에 잘 하는 일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플러스 박기범 대표는 금융 분야의 일 경험을 기반으로 임팩트 투자 회사인 비플러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내 주요 커리어인 금융은 외부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지금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회적기업들을 위한 은행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게 됐다"고 창업 계기를 밝혔습니다.

소셜벤처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주목!

"만약 생리컵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했다면 해당 시장은 예전에 열렸을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은 생리컵 시장을 선점하지 않았다. 투자 대비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셜벤처가 주목하는 건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의 가치다. 바로 여성들에게 좀더 건강한 월경용품 제공하지는 것이다. 우리는 미션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열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열자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소셜벤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성들의 월경컵을 제작 및 판매하는 이지앤모어 안지혜 대표는 해결할 미션을 설정하고 그 미션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여는 소셜벤처만의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중간지원조직과의 교류 통해 성장한다

초기 소셜벤처의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려면

성장을 견인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뛰어나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면,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는 과정에서 인큐베이팅은 필수로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소셜벤처 대표들은 사회연대은행의 창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기획행사 실행, 사이트 개발 등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업적으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것을 강점으로 꼽는 팀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넵스터의 김현성 대표는 "소셜벤처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볼 곳이 생긴다는 게 좋다"면서 인지도가 낮은 초기 기업으로서 사업 관련 정보를 얻는 창구를 제공해준다는 점도 인큐베이팅이 주는 이점으로 언급했습니다. 소셜벤처의 좌충우돌 창업 이야기를 담은 토크 콘서트 현장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선배 창업가들의 열정과 소신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전까진 소셜벤처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품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앞서 간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단서를 찾아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인 것 같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게 될 당신만의 가능성이 빛을 발할길 기원하겠습니다.

글 / 이상미 에디터 (베네핏 매거진)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동문 체전 '사.사.체.전.'



지난 2017년 10월 26일, 장충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사회연대은행이 발굴하고 육성한 사회적기업가 동문들의 '사.사.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 7기까지 약 175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날 체전은 사회연대은행이 배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인 창업팀들이 참여해 함께 몸으로 부대끼며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동문 체전 '사.사.체.전'은 사회연대은행과 육성사업 3기 출신 '휴브'가 함께 진행하였으며,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물고기 잡기', '킵러볼', '추크볼'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였지만 이내 곧 기수를 넘어 서로 어울리고 의지하며 즐겁게 미션을 완수해 나아갔습니다.

이날 MVP로는 전문 선수 못 지 않았던 '위플레이'의 '김영준' 대표와 '이지앤모어'의 '안지혜' 대표가 수상하였으며, MVP 외에도 '빠른 접수상', '인기상', '고생했상', '끈질김상' 등, 다채로운 상을 준비해 참가자 모두 축하하고 축하받는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동문 체전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애로 사항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사회연대은행도 육성사업 창업팀들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연대은행과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들이 함께 만들어 갈 내일에 대해 많은 기대 바랍니다.

|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힐링데이&졸업식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1년간 비전과 계획을 함께 수립해 온 33개 창업팀들의 졸업식이 2017년 11월 30일 LG소셜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졸업식에 앞서서 창업팀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포춘쿠키, 기업슬로건 액자 만들기, 희망등 만들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문 캘리그래퍼의 도움을 받아 기업슬로건을 멋있게 디자인하고, 나의 희망과 다짐을 담은 희망등을 만들면서 창업팀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슬로건과 희망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본 졸업식은 지난 1년의 시간을 담은 동영상 시청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던 입학식부터, 간접경험과 지식을 쌓았던 다양한 교육,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워크샵 등등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 당시의 감정을 다시 한 번 느껴보았습니다.

동영상 시청에 이어 졸업식은 사회연대은행 박상금 상임이사의 격려사를 비롯해 졸업장 수여, 참여 우수팀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창업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함께 고민했던 전문멘토단이 참석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창업팀들은 전문멘토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201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창업팀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에 참여 후 '소셜 UP, 희망도 UP'



글 / 올리브유니온(주) 송명근 대표

지난 2016년 9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소셜벤처를 발굴·지원하는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올리브유니온(주) 송명근 대표를 만나 지원 이후 변화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지원 당시, 올리브유니온은 설립 4일차 회사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생각해보던 사회적 가치와 사업모델에 대한 검증에 대해 도전한 사업이었습니다.

'Design for all,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사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보청기'를 만들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탄탄하지 않은 기반과 외부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업계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은 올리브유니온에게 적기에 찾아온 최적의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심사, 멘토링,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번째로 성공적인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모델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에서 326,000달러라는 펀딩 성과를 올렸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활동 중인 소셜벤처들과의 네트워크입니다.

사업 초기단계였던 올리브유니온은 다른 소셜벤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는데 동료 소셜벤처 기업가들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조언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올리브유니온이 구성하는 이상적인 소셜벤처를 만드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 좋은 멘토링 콘텐츠입니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고, 놓칠 수 있었던 디테일에 관한 조언이 실질적인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과 인연을 맺었던 올리브유니온이 최근 성공적으로 종료된 클라우드 펀딩 캠페인 이후,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2017년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18년에는 10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니온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회연대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소셜벤처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나'를 자라게 합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어설픈 뜻이 달린 배는 바람을 타지 못한다.

2011년, 당시 제게 낯선 단어였던 '사회적기업'이 주요 과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인권, 환경, 협력 회사관리 등 다른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업무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지만, 기업 사회공헌과 사회적경제 분야는 가까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LG전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으면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CSR 분야는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회적경제는 실제로 잘 알지 못했기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팀원들, 무엇보다 이 영역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폐를 끼치진 않을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팀에서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마저 퇴사를 한 상태에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동안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국내외 사회공헌 업무에 집중하며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규, 정책, 타사 사례 등을 공부하고 전문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LG가 추구하는 기업다운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반강제로 공부하고, 소셜벤처 사업가,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 분야를 알아갈수록 신기하게도 전혀 낯설지 않고 오히려 LG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이 되겠다는 맥을 같이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LG가 추구하는 기업가정신 및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즉 기업이 및 기업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회적경제 영역에 발을 디딘 지 7년차, 운이 좋게도 훌륭한 교수님들께 전문적인 조언과 교육도 받고, 멋진 기업가분들과 교제도 하며 SNS에는 개인적인 친구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더욱 감사하고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단계의 기업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사회연대은행에서 2017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기업가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막상 다른 운영위원님들과 기업가분들을 만나면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 해박한 지식에 겸손하게 되고, 기업가분들의 진정성과 열정에 다시 한 번 자극을 받는 저 자신을 보며, 다시 한 번

'어쩔 수 없는 행운'이라는 제 별명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저마다의 기술과 역량, 마음을 모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사회연대은행 임직원분들,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분들... 이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10주년을 지켜준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Now, it's my turn!

이제는 조심스럽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착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저 또한 사회적기업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전문성, 사회연대은행의 장점인 포용적 관계성, 마지막으로 LG가 추구하는 정도경영이라는 투명성을 두루 갖춘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늘이 주신 멋진 기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으로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 LG전자 CSR팀 김민석 팀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위원)

|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지원



지원건수	지원금액
28	774,920,000

LG소셜펀드(LG Social Fund)

LG전자와 LG화학은 환경경영 비전 및 비즈니스와 연계, 사회적금융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 및 사회적가치가 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친환경 소셜복합지원공간 LG소셜캠퍼스 공간을 활용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친환경 사업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 **사업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 공간 지원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7	190,000,000

HSBC KOREA 120 Fund

HSBC는 교육, 환경, 장애인 고용, 지역재생 분야의 기업 중 경영개선이 필요하나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 대출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경영개선 자금 지원(연 1% 이자 /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지원건수	지원금액
3	5,933,430

청년공유가게 성장지원사업

IBK기업은행은 청년 점포 창업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점포에 여러 매장이 공유하여 운영하는 공유가게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생태계 조성과 청년 기업가들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여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한 점포에 여러 매장을 운영하거나,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사업내용** : 사업비 지원, 탐방 워크샵·교육·프로모션 지원 등
- ※ 2018년 상반기까지 진행



지원건수	지원금액
12	195,100,000

클라우드 펀딩

한국전력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서비스를 알리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자금조달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온라인 펀딩과 오프라인 투자 대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사업내용** : 사업지원금, 펀딩 기획 및 제작 지원, 컨설팅·홍보비 지원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13	58,300,000

해외 진출 지원

한국전력은 해외진출에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공공기관과의 연계, 재정 및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해외진출 사업을 전개 중이거나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
- **사업내용** : 사업지원금, 지역별 워크숍, 공공기관 연계 지원, 지역별 리더 프리미엄 서비스 등



지원건수	지원금액
4	51,000,000

성장기반 자금 대출사업

한전KDN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기반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무이자대출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성장기반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법인)
- **사업내용** : 무이자 자금 대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주요행사



HSBC코리아, 사회적기업 지원금 전달

지난 2017년 4월 26일, HSBC코리아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기금을 사회적대은행에 전달했습니다.

HSBC코리아는 2014년부터 지역 청소년, 결식아동 급식도사락 사업, 환경교육 뮤지컬 극단, 이주여성 정착지원 기관 및 영농조합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원자금을 100% 상환하였으며 HSBC코리아와 사회적대은행은 기존에 지원을 받은 기업들과 새로 선발될 사회적기업들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은영 HSBC코리아 행장은 "HSBC 지원금은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보다 많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됐으며 올해 한국 진출 120주년을 기념해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기금 후원 배경을 전하고 "한국 사회적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발전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전력,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금전달

지난 2017년 7월 6일, 한국전력과 사회적대은행은 에너지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후원은 에너지 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대은행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5개 에너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선정하여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CO2 저감 솔루션을 제조하는 '라이코에너지',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업체 '에너지팜' 등 15개사는 대중들로부터 총 6195만원의 모금을 받았으며, 사회적대은행으로부터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의 3배수(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권식 한전 상생협력본부장은 선정된 대표들에게 "앞으로도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전KD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기금전달

지난 2017년 12월 20일, 한전KDN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기금을 사회적대은행에 전달하였습니다.

'한전KDN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성장기반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의 무이자 대출과 온,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는 농사펀드, 경기유동형마을기업, 두레박협동조합, 유기농비건 등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기금전달식에서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 사회적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거는 기대

사회적대은행과 한국전력은 해외진출 사업을 전개 중이거나 희망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선발하여 항공료, 현지 활동비, 수출에 필요한 준비 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KOTRA 무역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현지 수출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확충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2개 기업을 만나 본 사업에 거는 기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주식회사 리맨, 구자덕 대표

2015년 12월, 195개국에 서명한 국제 기후 파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세상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습니다. 주식회사 리맨은 IT폐기물을 안심하게 버릴 수 있도록 데이터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IT폐기물이 가진 가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분류, 정비하고 있습니다. 리맨이 재탄생시킨 중고컴퓨터 '리맨PC'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환경오염문제를 해소하고 IT폐기물이 가진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리맨 역시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법적인 제약입니다. IT폐기물과 관련해 국가간 장벽이 매우 높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각 나라별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중고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제한적인 해외투자입니다.

사회적기업 특성상 수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데, 불확실성이 큰 해외사업에 참여할 파트너 투자자금 모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해외사업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부실한 해외정보만으로는 사회적 미션과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제한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해당국가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과 현지정보', '현지에서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ODA

지금의 일부를 사회적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의 힘으로만 불가능했던 해외진출에 한국전력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국전력이 베트남에 파견한 해외봉사단에 리맨이 재생산한 저렴한 PC를 같이 보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불용IT장비를 수리하여 해외에 보내는 것처럼 해외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과 같이 실행하여 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서로 윈윈하고 임팩트를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모어덴, 최이현 대표

가죽시트, 안전벨트, 에어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동차 매립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가방 및 패션아이템을 제작하고 있는 모어덴은 창업 전부터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인프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합니다. 나라마다 트렌드가 다르고 선호하는 제품의 유형과 디자인이 달라서 현지 시장조사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으로서 만만치 않은 비용의 부담과 해외진출이 처음이라 무역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 등 자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여러 지원프로그램이 있어서 두드려보았지만 해외 박람회 참가시 항공료 및 체류비 등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또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시 갖춰야 할 사전 준비사항과 진행 중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워크숍이나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한국전력 사회적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지원한 결과, 온 좋게도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지만 좀 더 기대한다면,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주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진출은 시작보다는 진출 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미팅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LG Social Fund'

LG소셜캠퍼스는 공익성이 높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년간 지원체계를 가다듬고 지원분야를 넓힘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6일, LG소셜캠퍼스 3기 비전 선포식 및 친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지원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 2기의 사업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된 LG소셜캠퍼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혁신을 통해 옳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LG소셜캠퍼스의 지난 6년 성과입니다.

6년

LG소셜펀드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LG전자와 LG화학이 함께 조성한 임팩트 투자 펀드입니다.

120억원

LG소셜펀드는 지난 6년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10개소

LG소셜펀드는 지난 6년간 총 110개소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무상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85억원

LG소셜펀드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원받은 총 금액입니다.

8%

LG소셜펀드 지원기업들은 지원 이후 8%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LG소셜펀드 지원기업들은 임팩트 투자를 통해 33%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00만원

LG소셜펀드 지원기업들은 임팩트 투자를 바탕으로 1인당 400만원에 달하는 노동 생산성 향상을 기록하였습니다.

10개소

LG소셜펀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총 10여 개소의 협력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플랫폼 LG소셜캠퍼스는 공간지원, 성장지원을 더욱 고도화하고 더불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가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임팩트 투자자 및 사회적경제를 위한 동반자로서 LG소셜펀드의 차기 사업인 LG소셜캠퍼스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소셜 복합 공간 'LG소셜캠퍼스' '사회적경제조직 및 벤처기업 대상 사업안정화를 위한 공간지원'



LG소셜캠퍼스는 사회적경제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LG전자, LG화학이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산학관 내에 조성한 친환경 소셜 복합 공간입니다.

2015년 사회적경제조직에 한정해 입주 기회가 주어졌던 '소셜존'을 개관, 운영하다 2016년 공간을 확장하고 입주대상도 일반 벤처기업으로 확대해 LG소셜캠퍼스 내에 '소셜존(325평, 1074m²)', '벤처존(413평, 1,365m²)'을 마련하여 사회연대은행이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독립 사무공간은 물론, 다목적 홀, 회의실,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LG소셜캠퍼스는 내부에 친환경 바닥, 내장재, 페인트 등을 사용해 환경 호르몬을 최소화했으며 폐자재 등을 재활용한 인테리어 및 사무가구 배치로 친환경 소셜 복합공간이라는 의미도 살렸습니다.



LG소셜캠퍼스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찾고, 사회적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공간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벤처기업 등 약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가든프로젝트' 박경복 대표는 LG소셜캠퍼스 입주 후 정량적, 정성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공유 공간 활용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주)소사이어티알랩' 슬픈의 이수진 대표는 LG소셜캠퍼스 입주가 첫 독립된 사무공간에서의 근무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점과 기업으로서의 외형이 갖춰져 조직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힘든 길을 가야하는 스타트업으로서 입주 선배기업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는다고 전했습니다.

LG소셜캠퍼스는 사회적경제 조직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지원을 넘어 공간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합니다.

| 민관 거버넌스 협치를 배운 HSBC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사회적경제조직 탐방'

2017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HSBC를 통해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받은 12개 사회적기업가가 함께 한 '2017 HSBC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는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부터 NPO 오오모리 동네 만들기 카페, 요코하마 기업 경영 지원재단, 세타가야 모노즈쿠리 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란탄 네트워크 신문사 순의 사회적경제조직 탐방이 이뤄졌습니다. 해외연수에 참가한 사회적기업가들은 관의 행정이나 지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민간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수 내내 웃는 얼굴로 한손엔 펜과 다른 한손엔 카메라를 들고 일본 사회적경제조직을 탐방한 우리 사회혁신가들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www.cb-s.net)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과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로 다양화, 복잡화 되어가는 지역문제에 대해 지역과 제휴를 도모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해 나가는 곳입니다. 한국과 다른 차이점이라면 대출자금을 대해 동경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금융회사와 협력한다는 점입니다.

NPO법인 오오모리 동네만들기 카페(www.oomori-cafe.com)

2006년 10월 설립하여 올해 13년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80명의 회원이 있고 사업비 및 운영비는 연간 약 1,300만엔 정도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이벤트, 지역정보지 발행, 마을 만들기 인재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매력적인 오오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자체 및 기업의 자금지원 하나없이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운영 및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코하마 기업경영 지원재단(www.idec.or.jp/keiei/csr/)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법을 근거로 지정된 요코하마 중소기업 센터로 중소기업 경영기반의 안정화 및 강화를 위해 자금 및 공간, 교육, 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요코하마 시내의 대학교 및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전문가 멘토가 연계되어 있음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례 중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NPO법인도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세타가야 모노즈쿠리 학교(setagaya-school.net/)

2004년 10월에 폐교한 중학교를 일부 리모델링하여 만든 모노즈쿠리 학교는 물건만들기 학교로서 세타가야구와 정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인 크리에이터들과 프로듀서들이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주도의 운영방식과 사업모델을 도입한 도내 최초의 폐교 활용사례로써 설립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간이 주민들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매우 재밌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예술마을, 단체 및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공간들에서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란탄 네트워크 신문사(www.30ans.com/)

육아나 육아와 관련한 교육의 현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엄마의 관점으로 시사하는 엄마들의 공동체 신문사입니다. 일본에서도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엄마들이 모여 펜으로 정보를 전하고 생각을 정리해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으로 정보를 전하는 것이 핵심인데 자신의 생각을 옮기는 것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혼자 육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보물이지만 보석은 아니다'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글 / 사회적기업사업팀 신혜영 대리



| '2017 HSBC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가 해외연수' 참가기업 연수후기



'행복도시락' 박명혜 대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세상을 조금은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 있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메이커스' 이미라 대표

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기업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일본의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를 만나보고 그 분들의 신념과 열정을 느끼며 이야기 나누는 경험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에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한누리' 이태호 대표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해야 올바른 목적에 닿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길을 힘차게 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 가는 기술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극단날으는자동차' 박정선 총감독

아주 작은 가치도 꾸준히 실행하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노즈쿠리 학교나 토란탄 신문사가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현장에서 필요를 찾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게는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추진할 기획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가니제이션오리' 권보라 쉼프

일본은 한국과 꽤나 비슷하면서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이형재 이사

기본적인 사회서비스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으며 웬만한 사회문제는 민간이 스스로 직접 해결하고 있는 점과 지역상황에 맞는 특화된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을 통해 민관거버넌스 및 협치가 활성화 되어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함께 참여한 선배 및 동료분들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사회적협동조합' 우종한 팀장

이번 연수기간 방문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의 동경도와의 사업은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또 함께 노력할 계기가 된 연수였습니다. 애써주신 사회연대은행 스텝들, 함께한 대표님들 고맙습니다. 많은 에너지와 시너지가 된 연수였습니다.

'주식회사 루미르' 윤형석 팀장

연수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의 많은 사회적기업가들이 지자체나 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자체나 기업의 지원에 의존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사업방식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만을 내세워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언더독스' 박찬웅 팀장

공동체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해결책이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솔루션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환경의 차이에 따라 그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때로는 그러한 분위기가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두루바른 사회적협동조합' 정주형 이사장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일본의 NPO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 법제도 등 표면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포하고 있는 성격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만난 도쿄의 다양한 조직들의 예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갔던 참가자들과의 공감으로부터 얻은 힐링과 소통으로 얻은 새로운 영감은 이번 연수의 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듭니다.

914명 / 2017년 풀뿌리 후원회원님

242,600,763원 / 2017년 풀뿌리 후원금



I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세상 한국JP모간 박라희 부문장



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은 물론,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육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비즈니스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Q 2015~2016년 청년 사회혁신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2017~2018년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계신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실업을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취약계층 청년과 여성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회혁신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경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즈니스 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 사업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되어 있고 창업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은 한정적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기획하고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유동성 증대를 돕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돕기 위한 JP모간의 스몰 비즈니스 양성 지원 전략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Q 박라희 이사님께서 지원 업체 선정

시 면접현장 심사 등 지원업체의 지원 전 과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실텐데 지원 업체를 만나며 느끼신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참여 업체 대표님들의 좋은 사업 아이디어와 능력, 열정에 항상 감동하고 응원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몇 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춰지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선발했던 업체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더 탄탄한 모습을 갖추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성장한 것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변화와 성장의 과정 하나하나가 참가하셨던 모든 청년사회적기업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도 의미있는 밑거름과 지지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JP모간의 사회공헌 또는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JP모간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투자 목표는 다같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업 준비, 스몰비즈니스 양성, 소비자들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글로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P모간이 가진 능력과 전문성, 글로벌 네트워크 및 자본을 활용하여 전세계 곳곳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방법과 서로 노력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A 상호간 신뢰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국JP모간에서 마케팅&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박라희입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해 JP모간체이스재단과 파트너 NGO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Q JP모간의 사회공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JP모간은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자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지역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챌린지 중에 하나는 경제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으로는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취업, 창업 및 성

I 사회연대은행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싶은 후원회원 박청미 '가백' 대표



지난해, 사회연대은행의 블라인드가 멀끔하게 교체되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풀뿌리 후원회원이자, 2015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창업지원사업 지원업체 '가백'의 박청미 대표가 창 블라인드 설치를 지원해 준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가 현저히 달라졌습니다. 박청미 대표는 '가백'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창업 준비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지만 담보가 없으며 거절당하고, 대부업을 이용하자니 높은 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우연하게 소개받은 사회연대은행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조건이라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시 받은 지원금은 제게는 한줄기 빛이었고, 하고자 하는 일과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용기였어요. 제게 있어 돈 이상의 것이었어요."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커피와 블라인드 설치하는 힘들고 위험해 여성 근로자가 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가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청미 대표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태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은 밥이라도 먹어서 보내지는 주의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이며,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오래된 단골은 물론이고 소개를 통해 오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라고 말하며, 돈보다는 성실함으로 고객들에게 또 주변 이웃에게 신용을 높여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사회연대은행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 자신이 가장 잘 하고 자신 있는 방법으로 사회연대은행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

었다고 합니다. "사회연대은행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그런 장사를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인드가 심하게 노후 된 게 보이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블라인드 설치를 계기로 사회연대은행에 자주 방문해 직원들을 만나고 가백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만 전문위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 대접받고 살라는 의미로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접(그릇)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받자마자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냈는데 집에 가져다 자 아이들하고 대접(그릇)을 보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 같고 힘든 시기에 저를 위로 해주는 것 같아 진짜 고마웠어요."라며 그 때를 추억하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사회연대은행에 정기 후원과 자신의 재능을 살린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박청미 대표에게 나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봤기 때문에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제가 하는 나눔의 액수가 큰 금액이 기보다는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커피 몇 잔 덜 마시면 되는 소소한 금액이예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이제는 주는 기쁨도 알게 되었거든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눴을 때 돌아갈 희망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도 주머니에 씨앗만 채우고 썩히기 보다는 썩을 틈주고 꽃과 열매를 맺어 다른 이를 도울 줄 알아야 하죠."라고 말하며 사회연대은행도 누구 하나 소외 받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탄탄한 기반이 되고 싶어요. 사회연대은행의 존재 이유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라는 사람으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돌맹이 하나 빠졌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은행을 지지하는 여러 돌맹이 중에 하나이고 싶어요."라고 박청미 대표 본인이 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해 설명하며 눈앞에 이익만을 바라고 쫓기 보다는 하루하루를 성실함으로 채워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눔을 지속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후원회원 중에는 과거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후원회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값진 기회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며 나눔의 선순환을 만들고 계신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사장님들'

사회연대은행은 수혜업체들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9월부터 2017년 6월, 약 10개월간 희망의 징검다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참여의지가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을 선발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미용 서비스(2개소), 반찬 서비스(2개소), 교육서비스(3개소) 총 3개 업종의 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중 2개 업체는 소셜벤처와 예비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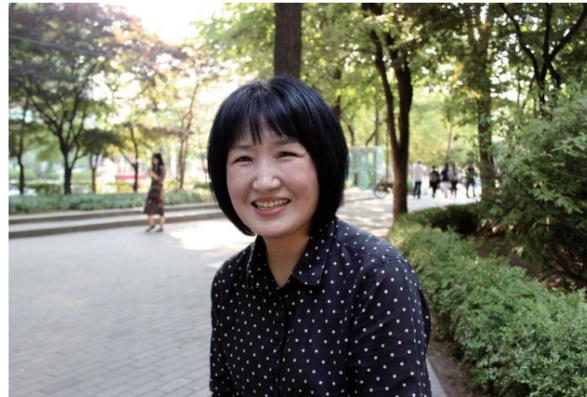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10개월간 노숙자와 보육시설, 저소득어르신 등 288명에게 이(점)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홀로 계신 어르신과 아동들에게는 맛있는 반찬이 약 294회 제공되었습니다. 또 지역 저소득층 아동 2명을 선정하여 8개월간 체계적인 체육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또 다른 2명의 아동에게는 피아노, 플루트 등 다양한 음악 교육이 제공했습니다. 미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벤처는 아동 거주시설 3곳에서 10개월간 무료 미술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는 개인 후원회원분들의 후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7개의 업체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이웃들이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금인 만큼 더 엄격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나눔의 참 의미를 실천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희망의 징검다리 참여업체의 대표님들은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나눔을 확산했습니다.

희망의징검다리를 통해 참여했던 7개 업체는 이와 관련해 주민센터와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나눔 활동 참여를 약속하거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눔가게' 선정되었으며, '지역사회 유공 표창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3개 업체를 직접 만나 희망의 징검다리 참여계기와 소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연스레 말하는 그런 살 맛 나는 세상

구로구 대림동에 위치한 JM헤어 신진영 대표는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매달 1회 인근 공원에서 어르신과 이주노동자,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개인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더 큰 힘을 얻고 있어요. 단정하고 깔끔해진 모습에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뿌듯하고 넉넉해져요. 물질적인 것보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건강한 것 같아요." 라고 신진영 대표는 나눔 참여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한 물음에는 '봉사활동 나올 때마다 뵈었던 어르신이 나오지 않으셨을 때, 내 부모, 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 그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아직도 그 안도했던 감정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라며 함께 어울려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의미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냐는 물음에 "서로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갖는 '고마움'을 적극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고 말하며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많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로 더 많은 가능성이 발휘되는 세상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아이노스 음악 교습소 한성심 대표는 음악 교육을 받고 싶으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받지 못하던 2명의 학생에게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10개월간 음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음악 교육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층 아동 2명에게 10개월간 피아노, 플루트 등 음악 교육을 진행했어요. 희망의 징검다리를 통해 저는 나눔의 기회를, 아이들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 늘 주눅 들어 있던 아이가 10개월간 음악 교육을 제공받은 덕분에 피아노 실력이 향상 되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며 한성심 대표는 나눔 참여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인과는 달리 어른의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환경에 따라 배움의 기회를 잃는 것이 안타까우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 더 많은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는 무엇이라는 물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두터운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며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동 후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상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 박준형 대표

2016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는 정성이 담긴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회사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그 레시피로 만든 상품 판매 이익을 레시피 제공자와 나누는 독창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사회적기업입니다.

"희망의 징검다리가 나눔에 대한 불씨를 당겼죠. 나눔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정성을 담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저희 반찬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구 수를 늘리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라며 처음 한 가구에서 시작해 지금은 20가구에 밑반찬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박준형 대표가 나눔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가 제공하는 반찬은 개인별 건강과 치아 상태, 질병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원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입소문이 나면서 성북구로부터 '지역사회 유공 표창상'을 수여받았으며,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반찬 지원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 참여와 관련해 박준형 대표는 "개인 후원자로부터 모인 후원금과 회사의 수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무감과 허투루 사용하면 안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주)트리플제이엔파트너스가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는 무엇이라는 물음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많은 법과 질서 등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큰 의미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사랑같이 작은 의미에서부터의 나눔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의 길이라 생각하며,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몸소 실천해야 재밌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나눔의 시작과 끝을 이어가는 희망의 징검다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해주신 소중한 후원회원입니다.

| 풀뿌리 회원

강경모 강경민 강기훈 강동훈 강두진 감미경 감미숙 감미영 감미옥 감미희 강법석 강병세 강선영 강성길 강수정 강홍희 강윤규 강은주 강정선 강창수 강한별 강형주 고광준 고길남 고봉진 고인준 고재승 고재형 고정곤 고한영 공형일 곽은주 곽준호 곽진혁 구대식 구현정 구희수 권덕철 권상득 권오배 권정례 권찬혁 금민희 길성남 김가영 김가영 김결주 김경선 김경순 김경실 김경애 김경주 김경철 김공선 김광래 김광순 김규순 김근태 김근중 김금옥 김금진 김기돈 김기만 김기석 김기진 김길원 김나연 김남석 김남식 김남필 김남호 김남희 김대희 김도윤 김동구 김동석 김동수 김동숙 김동찬 김동하 김동환 김마미 김만희 김명숙 김명완 김명준 김문숙 김미경 김미숙 김미숙 김미연 김미정 김미진 김민정 김민환 김병현 김보련 김보림 김보성 김보성 김봉중 김삼열 김삼용 김삼중 김상국 김상득 김상엽 김상우 김상우 김상택 김서로 김서영 김서중 김석룡 김선우 김선자 김선철 김선태 김선희 김성근 김성봉 김성우 김성열 김성완 김성우 김성욱 김성인 김성진 김성현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권 김세기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홍 김 숙 김순숙 김순식 김순자 김순희 김승권 김승균 김승범 김승태 김승희 김양환 김연수 김연욱 김연화 김영곤 김영광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숙 김영완 김영자 김영주 김영찬 김예성 김예주 김옥남 김옥자 김원희 김윤근 김용봉 김용섭 김용진 김용천 김용호 김원식 김윤성 김은미 김은솔 김은주 김이은 김인숙 김장섭 김재민 김재영 김재우 김재호 김정수 김정우 김정은 김정진 김정현 김정화 김종진 김주술 김주영 김주철 김준영 김지성 김진우 김진호 김창영 김철순 김철식 김치형 김태섭 김태우 김태윤 김태준 김택준 김평기 김평기 김 학 김학준 김해연 김현보 김현숙 김현욱 김현정 김현주 김형군 김형선 김형준 김형진 김혜민 김혜숙 김혜진 김호연 김홍길 김홍식 김환열 김효리 김효숙 김흥기 김흥수 김홍열 김희상 김희중 김희철 나강욱 나금호 나대순 나영민 나영순 나화숙 남병학 남아윤 남원호 남지윤 노경미 노우미 노재균 류명금 류성근 류주연 마은경 마지현 맹주현 문경자 문광석 문세현 문영민 문영숙 문진원 문태화 문혜정 민경돈 박가희 박경범 박경선 박경호 박경희 박광열 박근생 박기웅 박노선 박노천 박동성 박명숙 박명호 박문규 박미란 박미란 박미선 박미애 박미정 박민경 박병욱 박병춘 박성범 박상욱 박선희 박세진 박수웅 박승수 박영하 박용균 박용배 박용주 박용주 박정업 박정울 박정호 박정환 박종민 박종선 박종섭 박종혁 박종현 박종훈 박지민 박지인 박진도 박진호 박찬정 박창근 박청미 박춘화 박현경 박현규 박현철 박혜원 박혜자 박홍진 반봉섭 방성식 배미혜 배서준 배성복 배세남 배주만 백광현 백순향 백승훈 백인구 백장현 백재승 변영길 변우민 서경순 서기승 서명원 서민주 서승숙 서양원 서영자 서우용 서원진 서유진 서의동 서정민 서종석 서주미 서훈섭 석용도 선정훈 선혜연 설강희 성삼재 성정훈 소병순 소정섭 손근우 손석조 손영옥 손유미 손정인 손주연 손창기 손창민 손해리 손홍택 송기창 송두원 송병애 송성용 송수정 송승은 송영근 송영숙 송윤일 송인혁 송재욱 송재호 송정호 송정희 송지범 송호철 신강복 신길호 신미숙 신보선 신성호 신소이 신순근 신애란 신영민 신용재 신원용 신유진 신이순 신정호 신진영 신진용 신해림 신현성 신현진 신형진 심영미 심현준 안계근 안미보 안민수 안복임 안성관 안세형 안용배 안재홍 안정선 안중식 안준형 안홍희 안효천 양관승 양선희 양승철 양승철 양재준 양광욱 양창국 양태석 어수만 엄주현 여경상 여익환 여해량 예명숙 오경수 오금자 오남희 오승주 오재훈 오지연 오지윤 오준석 오혜숙 우우준 유지훈 우혜식 우효경 원소연 원수정 유년근 유민준 유병선 유세종 유승규 유일형 유한용 윤 건 윤귀자 윤동일 윤백용 윤수현 윤승현 윤영자 윤용선 윤용식 윤의숙 윤이덕 윤재원 윤종현 윤지원 윤지하 윤현덕 윤현수 이가현 이각수 이강래 이강수 이강순 이경숙 이경순 이경철 이경택 이경희 이공주 이광현 이광희 이규빈 이금주 이기만 이기호 이내숙 이다경 이대운 이대호 이도규 이도임 이동호 이리라 이만구 이만화 이무열 이미선 이미숙 이미화 이미희 이민재 이범재 이범준 이병용 이병진 이보영 이봉주 이상경 이상돈 이상례 이상열 이상은 이상훈 이서영 이서영 이석호 이상균 이성노 이성용 이성진 이세령 이수민 이수복 이수옥 이승선 이승연 이승우 이승은 이승일 이승환 이승희 이심선 이여중 이영석 이영주 이영주 이영환 이영훈 이용선 이우걸 이원태 이유경 이유나 이유열 이윤경 이윤찬 이은숙 이이숙 이인기 이인순 이재근 이재현 이재호 이재환 이 정 이정민 이정아 이정연 이정재 이재운 이재현 이종미 이종수 이종열 이종환 이주한 이준원 이준희 이지민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혜 이찬진 이창로 이창수 이창호 이철용 이태진 이필구 이하용 이한진 이해룡 이해숙 이현자 이현주 이형권 이형근 이형석 이형준 이해리 이해은 이효선 이효순 이효진 이희락 이희봉 이희선 이희영 익 명 인영란 인종실 임국현 임민경 임민준 임병구 임석현 임성자 임순이 임용택 임 윤 임인선 임정균 임정수 임종욱 임주영 임주환 임진선 임창현 임창호 임천우 임철기 임정일 임현섭 임형주 임형택 장 건 장경은 장기문 장도원 장두현 장미자 장범수

사회연대은행이 꿈꾸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는 여러분의 나눔으로 만들어 집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8-933903 (예금주 (사)함께만드는세상)

후원문의 사회연대은행 경영기획실 Tel.02.2280.3332 / E-mail.bss@bss.or.kr

| 풀뿌리 회원

장병식 장석우 장선이 장세나 장영인 장우중 장윤경 장윤주 장은영 장일수 장정성 장충식 장혜미 장 환 장희선 전기수 전배성 전병선 전병윤 전병은 전상희 전창하 정강일 정경목 정광태 정규리 정미경 정미영 정민택 정소저 정순영 정연호 정영옥 정원교 정원준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찬복 정창숙 정태식 정태용 정현민 정현홍 정혜경 정호석 정희연 조경희 조기선 조나영 조명수 조성윤 조성자 조순덕 조승환 조영노 조영록 조영상 조영석 조오섭 조완호 조용준 조원교 조원희 조은희 조인영 조승진 조진욱 조철규 조철호 조태연 조홍식 조희배 조희자 주숙경 주연환 주영현 주정미 주정인 지경순 지상훈 지하식 차정희 채남규 채수현 천기섭 천승현 천용우 천운주 천정훈 천희진 최경미 최권수 최낙복 최대영 최돈호 최두환 최명순 최봉석 최선홍 최선희 최성규 최승화 최수경 최승영 최승하 최연덕 최연희 최영인 최영환 최용대 최옥식 최원기 최은영 최응서 최익선 최인선 최인윤 최재경 최정숙 최정민 최정혜 최준달 최지연 최진우 최진우 최철원 최준욱 최하수 최희곤 최희관 추병관 하진호 한경아 한규성 한미영 한성진 한승명 한영실 한영현 한은경 한은자 한은지 한정국 한종만 한창구 한태영 한현숙 한현우 한혜영 한 호 함보라 함이연 함재서 함정열 허경두 허기영 허미영 허성수 허 식 허 연 허옥란 현길섭 현승진 홍경진 홍국래 홍두리 홍석출 홍성식 홍세리 홍안순 홍찬선 홍창호 홍한표 황국상 황명연 황미경 황미림 황미애 황미영 황의택 황인술 황재복 황정욱 황진우

| 풀뿌리 기업

(주)나눔발전소 (주)반진교리 (주)부키 (주)삼성분당사업소 (주)씨아이씨로지스틱스 (주)아이픽처 (주)아트임팩트 (주)에코시티서울 (주)오토 경주공장 (주)포켓머니 (주)한국스테노 공영공간플랫폼공공 까지머거리 노는엄마협동조합 농협은행모빌리티비 배아르시 세무법인청담 시니어 브리지 19기 시니어브리지18기 에스지아이신용정보(주) 영전보습학원 전국은행연합회 여성위원회 주식회사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 철도신협 체협왕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행복도시락(주)

| 노블하트 회원

김기혁 김기홍 김 석 김영기 김영호 김용덕 김용배 김인현 김정안 김정은 김정은 김중성 김지선 김하운 김호중 노학영 박성금 박성준 박세준 박윤우 박정열 박주원 박호정 배동욱 백우석 서경표 서용석 손영희 송관섭 송기권 신경한 신주식 윤만호 이관형 이선호 이종수 이준용 이진욱 이희성 정인섭 조강직 조경민 조현철 최광석 최진수 표희선 하인국 한찬희 홍미화 홍준기

| 노블하트 기업

(주)티제이산업 (주)푸드웰 에스티에스개발 주식회사 에프케이비씨지 오성회계법인

Noble Heart는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나눔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연대은행의 고액후원자 모임입니다. Noble Heart 후원회원의 참여로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지원을 받은 무지개가게를 지원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며, 사회혁신기업가와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습니다.

Noble Heart 참여 방법
개인이나 법인명으로 월 10만원 정기회원, 연 100만원 일시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오성회계법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역삼동) 강남제일빌딩 9F
Tel. 02.508.0052 Fax. 02.508.5521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수지계산서(고유목적사업)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의 정관 및 회계규정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주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의 2017년 12월 31일과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수지내역 및 잉여금의 변동을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의 정관 및 회계규정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9

오성회계법인
대표이사 남세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법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제 15(당)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제 14(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단위 : 원)

과 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7,855,350,470	15,293,981,632
(1) 당좌자산	17,855,350,470	15,293,981,632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4,987,695,606	12,383,410,464
2. 단기금융상품(주석4)	2,860,546,054	2,902,827,248
3. 선납세금	7,108,810	7,743,920
II. 대출채권(주석5)	13,788,494,884	17,537,103,836
1. 창업대여금		
대손충당금	11,180,518,391	11,207,760,162
2. 학자금대여금	(7,483,176,712)	(7,184,128,674)
대손충당금	13,393,177,811	15,760,283,405
3. 국민연금대여금	(3,312,949,150)	(2,268,933,654)
대손충당금	21,490,015	31,410,910
III. 비유동자산	(10,565,471)	216,290,446
(1) 투자자산	80,000,000	80,000,000
1. 매도가능증권(주석6)	80,000,000	90,000,000
(2) 유형자산(주석7)	31,750,945	6,681,139
1. 비품	212,844,010	182,015,510
감가상각누계액	(181,093,065)	(175,334,371)
(3) 무형자산(주석8)	9,694,501	2,051,958
1. 소프트웨어	9,694,501	2,051,958
(4) 기타비유동자산	94,845,000	94,445,000
1. 보증금(주석9)	94,845,000	94,445,000
자산계	31,860,135,800	33,024,263,565
부채		
I. 유동부채	179,193,037	210,097,984
1. 예수금	8,555,620	9,350,920
2. 지원금예수금	84,413,900	97,412,836
3. 기타보증금	31,800,000	-
4. 회수채권예수금	560,171	-
5. 창업대여금상환적립금(주석2, 10)	40,500,331	99,892,108
6. 국민연금대여금상환적립금(주석2)	13,363,015	3,442,120
II. 비유동부채	5,243,925,071	5,496,919,555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석11)	355,979,650	309,927,060
2. 창업대여금충당금(주석2)	4,202,321,420	4,637,127,522
3. 국민연금대여금충당금(주석2)	21,490,015	31,410,910
4. 학자금이자상환적립금(주석2)	664,133,986	518,454,063
부채계	5,423,118,108	5,707,017,539
순자산		
I. 자본금	9,406,941,002	7,005,254,554
1. 기본재산	50,000,000	50,000,000
2. 회수기금(주석12)	9,356,941,002	6,955,254,554
II. 조정금	[768,164,970]	5,075,753,760
1. 대여금조정금(주석13)	9,564,683,449	12,868,565,404
2. 자산조정금(주석14)	223,399,256	200,922,017
3. 부채조정금(주석15)	(1,199,306,673)	(1,038,479,107)
4. 회수기금조정금(주석16)	(9,356,941,002)	(6,955,254,554)
III. 잉여금	17,798,241,660	15,236,237,712
1. 미처분잉여금	17,798,241,660	15,236,237,712
순자산계	26,437,017,692	27,317,246,026
부채와순자산계	31,860,135,800	33,024,263,565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수지계산서

(일반사업, 목적사업)

제 15(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14(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단위 : 원)

과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사업수입	11,027,671,220	9,440,486,105
(1)일반사업	297,799,143	389,123,666
1.보조금수입	242,600,763	273,503,170
2.운영비전환수입	55,198,380	115,620,496
(2)목적사업	10,729,872,077	9,051,362,439
1.고유목적사업수입(주석17-2)	6,471,552,634	5,315,644,115
2.대여금회수수입	3,971,521,983	3,394,134,884
3.대여금이자상환수입	286,797,460	341,583,440
II. 사업외수입	76,407,538	100,011,032
(1)일반사업	11,226,745	18,719,210
1.이자수입	588,389	528,778
2.기타일반수입	10,638,356	18,190,432
(2)목적사업	65,180,793	81,291,822
1.이자수입	45,819,558	50,110,509
2.기타목적수입	19,361,235	31,181,313
III. 수입계	11,104,078,758	9,540,497,137
IV. 사업비지출	8,542,074,810	8,085,011,058
(1)일반사업	296,213,169	483,946,741
1.일반관리비	266,457,199	472,688,411
2.자산조성비	28,873,000	3,180,720
3.기타지출	882,970	8,077,610
(2)목적사업	8,245,861,641	7,601,064,317
1.고유목적사업지출(주석17-2)	7,687,260,141	6,946,974,707
2.회수대여금상환	496,381,980	528,302,804
3.일반운영비전환	55,198,380	115,620,496
4.기타지출	7,021,140	10,166,310
V. 당기잉여금	2,562,003,948	1,455,486,079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5(당)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8년 02월 26일)
제 14(전) 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7년 02월 20일)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단위 : 원)

과목	제 15(당) 기	제 14(전) 기
I. 처분전잉여금	17,798,241,660	15,236,237,712
1.전기잉여금	15,236,237,712	13,780,751,633
2.당기잉여금	2,562,003,948	1,455,486,079
II. 잉여금처분액		
III. 차기잉여금	17,798,241,660	15,236,237,712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2017 ANNUAL REPORT

발행일 2018년 3월

발행인 김성수

발행처 사회연대은행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통권 2018-BSS-100-001

디자인 BORAM

사회연대은행이 꿈꾸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는

여러분들의 나눔으로 만들어 집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8-933903

(사)함께만드는세상

후원문의

사회연대은행 모금홍보팀

Tel 02,2280,3332 / E-mail bss@bss.or.kr